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시간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2차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9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공동서신과 계시록 통독이 9월 15일(월)과 16일(화) 저녁 7: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가을학기 성서학당이 18일(목) 오전 10:30에 개강합니다. 공동서신과 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속회는 다음 주 12일(금)에 개학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족예배를 돕기 위한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성경봉독 시간에는 예배당 출입을 삼갑니다.

홍천 동면교회에서 재배한 옥수수를 판매합니다.

9월 5일부터 9일까지 광 한인연합교회에 신앙집회를 인도하려 다녀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용서하기가 이번 주 신앙실천입니다. 물론 그 이상도 좋습니다.

출 3:1~15 / 시 105:1~6, 23~26
롬 12:9~21 / 마 16:21~28

미정

오늘 식당 봉사 : 최현옥 김순자 이수정 김신실 심기섭 이순용 임주빈
 다음 주 식당봉사 : 씬 (추석 명절)
 오늘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씬
 떡 키 피 대 접 : 오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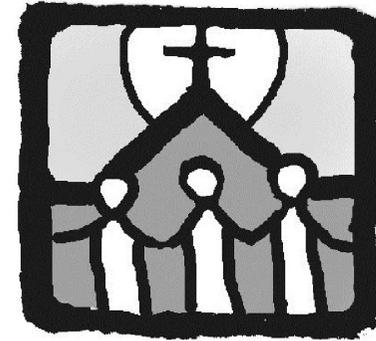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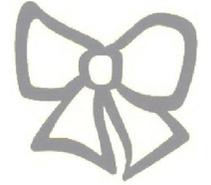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려오고, 하늘은 높고, 햇살은 우리의 깊은 곳을 익히는 듯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 맑아지고 성숙해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는 자와 함께 올라'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로해줄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는 자 곁에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곽상준	최경미	김기석	김희우	김명하	오형일	김성우
박유경	김숙현	김재흥	최희영	김종락	박영신	김훈동	유경순	박규석
박경선	박영희	박예림	박옥순	서정순	성지현	양상철	박재란	오자영
원인해	윤수진	윤주원	최윤선	이경남	이용석	이재삼	전정현	이주경
이주영	오재영	이진영	한양미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장근성	박희순
장동훈	정은선	장원호	박성희	전인섭	정상천	김원경	정영우	김지윤
정우선	정원석	김현영	정현숙	주경진	이윤정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추현영	하현철	최성애	한규숙	허신열	홍소형	홍순구	안홍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감사헌금

강순배	김용진	박효선	김재흥	최희영	김진중	김태정	박기영	박옥순
박용진	김용원	박희순	백묘현	시시권	백경임	오미경	오미숙	오진훈
노순옥	윤미경	윤수진	은종인	이범석	류정욱	주명재	한성자	차혜심
노미향	최은미	베틀한복	무명13					

생일감사헌금

이봉옥 김연희

녹색꿈헌금

김정진 김혜정 김향자 박호규 강영님 이승지 임승동 백혜숙 무명6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심	심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중		

화인(火印)

- 도종환

비 올 바람이 숲을 훑고 지나가자
 마른 아카시아 꽃잎이 하얗게 떨어져 내렸다
 오후에는 먼저 온 빗줄기가
 노랑붓꽃 꽃잎 위에 후드득 떨어지고
 검은등뼈꾸기는 진중일 울었다
 사월에서 오월로 건너오는 동안 내내 아팠다
 자식 잃은 많은 이들이 바닷가로 몰려가 쓰러지고
 그것을 지켜보던 등대도/ 그들을 부축하던 이들도 슬피 울었다
 슬픔에서 벗어나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섬 사이를 건너다니던 새들의 울음소리에
 찢레꽃도 멍이 들어 하나씩 고개를 떨구고
 파도는 손바닥으로 바위를 때리며 슬퍼하였다
 잊어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남쪽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지켜본 바닷바람이
 세상의 모든 숲과 나무와 강물에게 알려준 슬픔이었다
 화인처럼 짙혀 평생 남아 있을 아픔이었다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욕망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을 향한 순례여야 합니다.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사랑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아멘. 너무 쉽게 욕망에 이끌려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사랑의 순례자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의 욕망보다는 주님의 뜻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날마다 욕심을 비우고 주님의 사랑과 뜻을 채워가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세월호 기도회	9월 기도의 밤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한정애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곽권희 권사 오자영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조문규 황현성 임영선 진정숙 이오복
	헌금위원	김인걸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좋은 사회

... 아시다시피, 저는 지나치게 오래 살아왔습니다. (웃음) 정말 그래요. 정말이지 많은 역사를 내 피부로 직접 느꼈지요. 그리고 서로 아주 다른 제도와 체제를 가진 사회에 살았고,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다른 두 형태의 전체주의를 경험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제 삶의 끝자락에서, 제가 꽤 오랫동안 중요한 가치들이 제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꿔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에 대해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자면, 다소간 체념을 더한 결론이긴 하지만, 결코 비판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즉, 사실상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사회는 없지요. 어떤 사회든 늘 개선이 요구됩니다. 사실 완벽한 사회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완벽한 사회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 나는 해결책을 갖고 있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현대사에서 대부분 최악의 독재자로 드러나곤 했지요. 히틀러에서 시작하여 마오쩌둥까지 인간 고통의 역사가 이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의 자유는 노예와 비슷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에 대한 저의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사회란 자신이 속한 사회가 결코 현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야만 현재 상태에서부터 개선과 발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10년을 공들여 그 어떠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꿈을 꿀 수도 없게 되며, 오히려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다는 조건하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더 나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즉 “난 어떤 변화도 꿈꾸지 않아. 이대로가 좋아”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겠지요. 물론 저는 이러한 완벽한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저는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거기엔 어떠한 빈 공간도, 어떠한 의미 없는 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역사적으로 결정적이며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해줄 그 어떤 확실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그 일이 성공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희망하기를 멈추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공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하지만, 글썬요,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들 대부분이 성공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나 패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실패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하죠. 또한 이것은 희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공에 대한 보장 없이도 우리는 무언가 희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희망하기를 멈출 때, 우울한 기운과 불길한 예감이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만이 우리 삶에서 가능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끝없이 시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모든 것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누군가 끊임없이 파도를 거슬러 헤엄치고자 했고, 이것은 결국 당대의 희망을 거슬러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것이었지요. 아마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의 동굴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 역사란 어떻게든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리스 출신의 위대한 프랑수아 철학자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는 신문 인터뷰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카스토리아디스 씨,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인류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건가요?” 이에 그가 답하길, “전 혀요. 저는 한 번도 인류를 변화시키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늘 역사 속에서 그래왔듯이 인류 스스로가 그 자신을 바꿔 나가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이렇듯 역사란 끊임없는 변화의 기록이자 연대기입니다. 이 끊임없는 변화란 늘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